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그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대 희

이 논문을



제출함

일반사회교육전공

김 성 도

김성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8월 일

주 심 정치학박사 류 태 건 

위 원 정치학박사 김 진 기(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대 희(인) 

목 차

목차	1
표 목차	3
ABSTRACT	4
I. 서론	6
1. 문제 제기	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II. 분석의 이론적 틀 : 민족·민족주의의 개념 분석	10
1.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일반적 특징	10
2. 민족주의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유형	13
3. 종족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20
4. 한국 민족주의의 성격	23
(1) 단일 민족성의 신화와 국가주의 전통	23
(2) 문화적 동질성과 집단주의적 사회조직	25
(3) 다원적 탈민족 사회로	26
III. 사회과 교과서의 민족·민족주의 개념 분석	30
1.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민족·민족주의	30
(1)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변화	31
(2) 민족·민족주의 교육의 변화	36

2.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주의	38
(1)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 고취	39
(2) 민족 주체성과 자주 독립 정신 고취	42
(3) 국가 발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44
(4) 통일의 역사적 사명감 인식	46
IV. 민족주의 교육의 효과 : 고등학교 학생들의 민	
 족·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49
1. 설문조사의 목적과 문제	49
(1) 설문조사의 목적	49
(2) 설문조사의 문제	49
(3) 가설의 진술	50
(4) 설문조사의 범위 및 제한	50
2. 설문조사 내용분석	51
(1) 설문 항목 및 응답빈도	51
(2) 빈도분포 분석	54
(3) 가설 검증	58
3.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63
V. 결론 및 제언	65
참고 문헌	69
부록 : 설문지	73

표 목 차

- <표 1>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의 내용 체계
- <표 2> 설문 항목 및 응답빈도
- <표 3>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성향
- <표 4> 세계 지향적 의식성향
- <표 5> 자국 중심적 의식성향
- <표 6> 민족형성을 위한 요소로서 혈연에 대한 인식
- <표 7> 민족형성을 위한 요소로서 민족 의식에 대한 인식

A Study on the Concept of Nationalism Represented in
the Social Studies Text Books of the High School
and It's Educational Effects

Sung-Do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ince modern times, schooling as a kind of common education has been closely connected with both Korea and its society, including each individual's development. Social studies in particular in Korea have had more of a tendency toward this,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 that is closely related to social phenomenon in general. Recently it has faced a serious problem. It is becoming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ception and trait of our Nationalism, because schooling has one tradition that is that the education of national spirit has been regarded as in the field of Korean history, and our civic education based on democracy itself, as that of social studies since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Nationalism is one theory that has appeared since industrialization and the beginning of the modern country. It has one historic aspect that it is not a super-historical idea and that it may disappear some day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It seems that Korea has a strong need to enhance nationality due to her special qualities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However, Nationalism in Korea is thought to have a strong consciousness of in groups, considering not only reality but also the national sentiment. Moreover, I think that we can find a tendency for great emphasis on this fact described in

the present textbooks of high school education in Korea made up of common education.

In fact, as for the role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t is to emphasize the interaction with another person including the human dignity and self-realization, and make students experience an opportunity to care about others. Needless to say, the establishment of a cultural identity and the recovery of community spirit through understanding cultural heritage will have to be emphasized as well. Therefore, we should not force nationality itself on the students and make them accept it uncritically, from the standpoint of social studies at least, and try to suggest a new direction in the education of this subject.

In this research, first of all I will study some scholars' theories on Nationalism, and clarify special qualities of Nationalism in Korea.

Secondly, I intend to understand the different conceptions of subjects about nationalism by analyzing several social studies textbooks, and analyze a few differences between its theoretical conception and the one in reality found in the previous analysis on the textbooks. From this point of view, I wish to examine a strong question, "When it comes to Nationalism shown in the textbooks of social studies, does it contain an appropriate universality for what is suitable in this globalization age? Otherwise, does it have any defensive or self-centered factor?", and find a new direction in the nationalism education by using all these findings.

I. 서 론

1. 문제 제기

근대 이후 보통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은 개인의 발달 차원을 넘어 국가 및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 특히 사회과는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과목의 특성상 더욱 더 이러한 경향을 띄고 있다. 공교육으로 보통교육이 실시된 이후 교육은 국가와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공교육의 교육이념으로 표명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 시대를 거쳐 국토의 분단과 한반도의 내전을 겪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후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조 속에서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통일의 민족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의 경우 국가 공동체 의식의 확립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 직후 국사를 중심으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고취하는 민족 의식 교육과 국가 의식 교육이 이루어졌고, 사회과에서는 사회과의 본질인 민주 시민 교육의 원리를 주입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사회과교육은 민족 의식 교육을 감정적 기반으로 하고 민주 시민 교육을 이상으로 하는 이른바 국민 교육의 현실적 요구를 중시하는 복합적, 중층적 성격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¹⁾ 우리의 사회과에서 민족 의식 교육은 국사의 몫으로, 민주 시민 교육

1) 최용규, "한국 사회과에서의 민족 의식 교육", 박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2, p. 23.

은 사회 분야의 몫으로 간주해 온 전통은 민족·민족주의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민족·민족주의는 산업화와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는 초역사적 개념이 아니며 세계화가 진전된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역사성을 가진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화하고,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형태의 범죄를 무수히 보아 왔다.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오랫동안 통일된 국가를 형성해 왔던 전통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대사에서는 식민지 지배로 인해 근대화의 과정이 지체되었다. 또한 외세에 의해 남북한이 분단되는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민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필요하나 우리의 현실과 정서 속에서 민족·민족주의는 지나친 집단주의 의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보통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러한 점이 강조되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과 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를 실현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타인에 대한 배려를 경험하도록 하며, 전통문화의 이해를 통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또, 가치 탐구 경험과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을 증시하는 인성 교육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²⁾ 따라서 민족 의식의 강제적 주입이나, 무비판적 수용은 적어도 사회과에서는 지양되어야 하며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조상제·박제윤·노희방·최병모, 『교육부 사회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2001, p.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특성과 성격을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교과 간의 상이한 개념을 파악하고, 이론적 개념과 교과서 분석에서 드러난 실제와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주의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보편성을 지녔는가?’ 또는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요소는 없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민족주의에 관한 새로운 교육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먼저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과 이론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선행 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분석의 이론적 틀로 삼고자 한다. 또한 문헌 연구를 통해 종족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한국의 민족·민족주의 성격을 정리한 후 앞으로의 민족·민족주의가 나아갈 방향과 역사적 궤도를 상정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주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과의 영역을 보다 광의로 해석하면 3가지 전공 영역인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의 내용 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사회과라고 할 때 이는 협의의 사회과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과 사회)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지리를 제외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과 과정별로 등장하는 민족·민족주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사와 도덕 및 사회 중심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주의 개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학생들의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민족주의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 19개의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성향, 세계 지향적 의식성향, 자국 중심적 의식성향,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민족형성의 요인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달라진 도덕 교과³⁾를 학습한 고등학교 2·3학년의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교차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광역시의 4개 구에서 각각 한 학교씩을 선정하여 1변수 기술적 문제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V 10.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으로 자료를 처리하였으며 chi-sq분석으로 자료의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3) 7차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에는 6차 교육과정 윤리 교과서에 있던 3단원의 2장 '민족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삭제되었다.

Ⅱ. 분석의 이론적 틀 : 민족 · 민족주의의 개념 분석

1. 민족 · 민족주의 개념의 일반적 특징

대부분의 이데올로기들이 그렇듯이 민족주의도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민족주의는 역사적 상황이나 추진 세력에 따라 형태와 기능이 달라질 뿐 아니라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그 의미나 내용이 달라진다.

민족주의 개념이 다양한 것은 우선 n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의적인데 기인한다. 영어 nation에는 민족 외에도 국가, 국민이라는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 nation을 일단 민족으로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혈통, 언어, 전통에 입각한 문화적 개념으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정치 조직에 기반을 둔 민족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정치적 개념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의미와 내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nationalism도 역사적 상황에 따라 국가주의, 국민주의, 민족주의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⁴⁾

민족주의의 개념이 애매한 두 번째 이유는 그 성격과 형태가 복잡하고 이율배반적인 속성이 많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의 성격은 민주적일 수도, 권위적일 수도 있고, 또한 혁명적일 수도, 반동적일 수도 있다. 이처럼 민족

4) 전종익,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한 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2, p. 12.

주의는 지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민족주의의 성격과 유형은 민족과 민족주의자의 수만큼이나 많으며, 다양한 사회 이데올로기들과 결합되면서 천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⁵⁾ 또한 민족주의는 내용과 성격이 모순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거나⁶⁾ 그 양면성으로 인해 패러독스로 가득 찬 매우 복잡한 역사적 현상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⁷⁾

한편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는 민족의 통일과 독립, 번영과 발전을 최고의 목표와 가치로 신봉하는 이데올로기이다.⁸⁾ 민족주의에서 민족은 모든 정치권력의 근원이고 민족에 대한 충성은 다른 것에 대한 충성을 압도한다. 민족주의는 민족과 결부된 가치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치와 세계적 보편 가치를 거부한다. 민족주의는 그 유형과 성격이 어떠한가에 일반 이데올로기와 다른 점이 있다. 일반 이데올로기는 모든 실현하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다른 이데올로기가 내포한 보편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도와줄 뿐이다. 이 점에서 민족주의는 목적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수단의 이데올로기이다. 물론 민족주의도 목적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다.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이 자주 독립과 해방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거나, 분단된 국가가 통일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을 때 민족주의는 목적의 이데올로기가 된다.⁹⁾

그러나 절대적 민족주의는 한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그것의

5) 임지현, "민족주의", 김영한·임지현 (편), 『서양의 지적 운동 I』 (서울: 지식산업사, 1994), p. 541.

6) Tom Nairn, *Faces of Nationalism : Janus Revisited* (London: Verso, 1997), p. 67.

7) Louis L. Snyder, *The New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 Press, 1968), p. 14.

8) 차기벽, 『민족주의 원론』 (서울: 한길사, 1990), p. 257.

9) 김구,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 백범 김구 자서전』 (서울: 돌베개, 1997), p. 423.

지상 과제였던 통일과 독립이 실현되고 나면 그것은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대외적으로 민족주의는 국제주의로 이양되고, 대내적으로 그것은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에게 자리를 이양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보편적인 이념과 제휴하지 않은 민족주의는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순수 민족주의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족주의는 보편 이념들을 목적지까지 전달해 주는 매개체이며 그들을 생동감 있게 하는 활력소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등과 쉽게 결합하였고, 또 이들 이데올로기와 결합할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편적 이념과 결합하지 못한 민족주의가 맹목이라고 한다면 민족주의에 뿌리를 두지 못한 보편적 이념은 공허하다고 하겠다. 결국 민족주의는 어떤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자유적, 보수적, 급진적 등의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민족의 역사적 조건과 상황 그리고 문화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민족은 원초적이거나 불변의 사회적 실체가 아니다.¹⁰⁾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도 절대적이거나 순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도 악도 아니며, 또한 해방의 담론도, 권력의 담론도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이 양자 모두를 공유한다. 어느 면이 표면화되느냐 하는 것은 역사적 조건과 상황에 달려 있다. 민족주의는 수단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적 규범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를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찬양하든, 비판하든 간에 언제나 실패하기 마련이다.¹¹⁾

10) 홉스봄·랑거, 최석영 (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울: 서경문화사, 1995), p. 25.

11) Tom Nairn, "민족주의의 양면성", 백낙청 (편),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1), p. 244.

2. 민족주의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유형

민족 형성의 객관적 요소는 자연적 요소로서 혈연과 지연이 있다. 혈연은 동포 의식과 애착심을 자극한다. 지연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혈연을 같이 하는 인간 집단도 지연을 달리함으로써 별개의 민족을 형성하는가 하면, 혈연이 달라도 지연을 같이하여 오래 살게 되면 결국 하나의 민족이 되기도 한다. 민족은 혈연·지연의 자연 공동체이면서 문화 공동체이다. 언어, 역사적 운명, 신화나 기념비적인 인물, 종교, 정치나 경제는 문화 공동체의 요소로서 이러한 공통성은 민족 의식을 각성시켜 민족형성의 길을 걷게 한다.¹²⁾

민족형성의 주관적 요소는 민족 의식이다. 이는 민족 구성원들이 같은 민족에 속해 있고 따라서 운명을 같이 한다고 느끼는 의식이며 이러한 민족 의식에 의해 민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은 국토, 정치, 경제를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며, 다른 민족과 상이하다는 인식은 혈연, 언어, 종교 등에 대한 인식에서 발생한다. 또한 운명 공동의 인식은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도출된다. 다시 말해 민족형성의 주관적 요소는 객관적 요소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¹³⁾

민족주의는 근대 역사의 산물이다. 유럽에서 절대주의의 붕괴, 자본주의의 등장, 국제 관계의 변화 등으로 민족주의는 탄생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민족주의는 자신들만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또한 민족에 대한 불분명한 경계도 국가에 의해 비로소 하나의 완

12) 최용규, 앞의 논문, pp. 12-13.

13) 최용규, 앞의 논문, p. 14.

전한 민족으로서 선언되고 공표된다. 근대 역사는 바로 이러한 국가와 민족의 변증법적 통합의 과정이었다.¹⁴⁾

민족주의는 서양에서 18세기 후반에 산업적·정치적 변혁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어서 민족주의는 19세기에는 중부 유럽에서 동부 유럽으로 확산되었으며, 20세기 초부터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일어났다. 민족주의가 형성될 수 있는 근거는 자신들이 혈연적, 언어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내적 단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감정이나 의식 또는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지 등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원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힘을 발휘하였다.¹⁵⁾

고대에서부터 18세기 중엽까지의 역사적 단계들에서 나타났던 민족 감정들은 때로는 메시아사상이나 문화적 우월감에서 나왔으며, 때로는 지배 신분이나 왕조들이 지배력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강조된 감정과 태도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들은 민족주의라고 지칭할 수 없겠으며, 일반적으로 근대 민족주의의 실제 역사는 프랑스혁명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민족주의가 이전의 민족 감정들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세속적이고,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표현이자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¹⁶⁾ 즉 이제 민족주의는 모든 제도와 현상을 탈종교화시켜서 현실화함으로써 세속화되었고, 또한 인권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함으로써 대중을 결집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민족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충성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권위를 상실한 종교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초월적인 성격도 지니게 되었다.¹⁷⁾

14) 임현진·정영철, “국가·계급·민족·문화”, 『한국사회과학』 21-1, 1999, p. 2.

15) 차기벽, 앞의 책, pp. 79-80.

16) 이상신, “민족주의의 역사적 발전과 그 기능”, 한국서양사학회 (편), 『서양사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까치, 1999), p. 9.

서구에서의 민족 국가의 성격이나 그들이 표방하였던 민족주의 이념은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민족 국가의 형성이 일찍이 완성되었던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국민 주권론이 강조되었다. 이런 민족 국가는 한 개인이 민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관적 의지나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연유하였다.¹⁸⁾

반면 독일에서는 뒤늦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빠른 민족 국가의 성립을 위해서, 신비적이고 관념적인 민족정신에 대한 호소가 더 강조되었다. 여기에서는 혈통과 언어를 강조하는 문화민족의 원칙이 강조되고, 결국 이런 독일 민족주의 유형은 중동부 유럽에서 하나의 전범이 되었다. 그리고 한민족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독일형의 민족주의 관념에 더 가깝다.¹⁹⁾ 여기에서 도출된 가장 위험한 사고는 민족을 형성 중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절대 불변의 실체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민족을 원초적이거나 불변의 사회적 실체로 보지 않으며 그것은 특정한 종류의 근대적 영토 국가, 즉 민족 국가에 관련될 때에만 사회적 실체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민족에 앞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근대 민족은 가시적인 기준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각국이 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에 의해 발현된 역사적 산물이다.²⁰⁾

그렇다면 민족형성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는 근대 국민 국가의 창조

17) 전종익, 앞의 논문, pp. 16-18.

18) 정현백, "민족주의, 국가 그리고 페미니즘", 『역사학회 가을심포지엄 자료집』 2000, p. 2.

19)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 연구 : 한반도 민족주의를 위하여』 (서울: 당대, 1997), pp. 40-46.

20) 전종익, 앞의 논문, pp. 19-20.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브루윌리(John Breuilly)는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형성, 지식인 계층의 역할,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의 전환, 상징과 의례(symbols and ceremonies)의 기능을 들고 있고²¹⁾, 톨리(Charles Tilly)와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전쟁과 국제 관계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²²⁾,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인쇄 자본주의와 순례 등을²³⁾, 겔너(Ernest Gellner)는 산업화의 효과와 전략²⁴⁾ 등을 들고 있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민족의 형성은 자본의 혁명, 무정부 상태의 국제 현실, 문화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⁵⁾

첫째로, 자본의 혁명은 봉건적 질서의 해체 속에서 새로운 정치 단위체에 대한 모색을 발전시켰고, 국가를 통해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단일 시장의 형성을 가져왔다. 국가는 이러한 자본의 혁명 덕분에 언어와 교육의 통일을 추진하고 중앙집권적 국가 권력의 물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둘째로, 무정부 상태의 국제 현실은 국가로 하여금 언제든지 생존을 위한 전쟁 준비를 다그쳤으며, 이를 위한 상비군의 건설, 세금의 징수, 중앙 통제하의 관리 기구의 확장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중앙 권력에 의한 자원 추출은 곧 국가의 형성 과정이자 민족을 형성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물줄기가 되어 버렸다.

21) John Breuilly, *Nationalism and the Stat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p. 54-71.

22) Anthony Giddens, 진덕규 (역), 『민족 국가와 폭력』 (서울: 삼지원, 1991).
Tilly Charles, "States and Nationalism in Europe 1492-1992" *Theory and Society*, vol. 23/1, 1994.

23) Benedict Anderson, 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사회비평사, 1991).

24)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25) 임현진·공유식·김병국·설동훈, "한국에서의 민족 국가 형성 및 전개에 대한 동학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 『성곡학술논총』, 성곡학술문화재단, 1996, pp. 606-608.

셋째로, 문화혁명은 시민의 공동체적 정신의 확장을 가져왔다. 종교적 세계관의 붕괴는 세속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확대, 강화시켰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통일성에 대한 국가 개입의 증대와 공동의 역사적 기억에 대한 강조는 서로 서로 분리된 개인들에게 동질감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²⁶⁾

민족주의 형성의 세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족주의를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다음으로 민족주의는 지역에 따라서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나기도 했다는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피압박 민족에서 우선 자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연구하는 일단의 지식인들이 형성되고 다음으로 이들에 의해 애국주의적 열정이 일어나며, 이에 영향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대중에게서 민족 의식이 발흥하여 민족운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족 의식이 형성되는 지역은 주로 후진 약소국가들이었으며, 특히 피압박 상태에 있는 지역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는 근대화의 의지와도 상당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위의 세 가지 경우들에서도 그러하듯이 민족주의의 형성은 근대화 또는 산업화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²⁷⁾

그래서 근대의 민족주의를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²⁸⁾ 자본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통일하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으나 그 대가로 엄청난 불균등 발전을 초래하였다.²⁹⁾ 이 불균등한 발전으로 인한 갈등에서 여러 유형의 민족주의가 발생했는데 크게 보면 자본주의 핵심부의 팽창적 민족주의와 그 외부의 저항적 민족주의로 나눌 수 있다. 유럽의 민족주의는 19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프랑스혁명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에

26) 임현진·정영철, 앞의 논문, 1999, p. 7.

27) 전종익, 앞의 논문, p. 18.

28) 박호성, 앞의 책, p. 31.

29) Tom Nairn, 앞의 논문, p. 253.

기초해 있어 진보적인 자유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산업 자본주의의 발달에 기초한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유와 해방의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는 권력 지향의 정치 이념인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변하였다. 식민지 전쟁으로 전시체제에 돌입한 유럽 열강들은 국민의 애국심과 호전성을 고취하고 그들의 침략전쟁과 팽창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족 우상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개인숭배를 동시에 강요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민족주의를 팽창적 또는 통합적 민족주의라고 부른다.

반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은 주권을 상실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주 독립은 곧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따라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들의 노력과 저항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유형을 저항적 또는 해방적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운동의 성격이나 강도에서 민족주의 운동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침략적·팽창적 민족주의가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반해 저항적·해방적 민족주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였다. 그 결과 저항적 민족주의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강대국도 노골적인 침략 행위를 삼감으로써 팽창적 민족주의의 양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다. 민족의 자주 독립 또는 팽창을 추구해 온 정치적 민족주의는 이제 국가의 실질적 이익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민족주의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자유와 평등보다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여기에서 민족주의는 후진국의 근대화 운동과 조우하게 된다.

근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지만 흔히

경제적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후진국에서의 근대화는 서구화를 뜻하고 서구화는 산업화를 의미한다. 서양의 근대화는 장기간에 걸쳐 모든 분야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후진국의 근대화는 단시일 내에 성과를 얻기 위하여 시간과의 전쟁을 하였다. 그러나 자본, 기술, 관리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의 에너지를 동원할 필요가 있고 국민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이념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민족주의였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본의 아니게 개발 독재를 합리화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 모순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³⁰⁾

지금까지 팽창적 민족주의, 저항적 민족주의, 근대화 지향 민족주의 등 민족주의에 관한 세 가지 유형을 언급하였다. 팽창적 민족주의가 국가의 형성과 통일이라는 통합적 성격이 강하다면 저항적 민족주의는 민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해방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근대화 지향 민족주의는 전통 사회의 굴레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해방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부강한 국가의 건설을 위해 국민의 결속과 단결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통합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의 역사적 의의는 바로 통합과 해방의 기능에 있다고 하겠다.³¹⁾

30)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정희 정권이다.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8, 참조.

31) E. J. Hobsbawm, 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0), pp. 216-217.

3. 종족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족의 형성이 자본의 혁명, 무정부 상태의 국제 현실, 문화혁명과 같은 3대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간 집단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만드는 인종적·문화적 공동체로서 종족(ethnic)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스미스(Anthony D. Smith)는 “누가 민족인가?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민족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의식의 기저에 역사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족의 연속성을 강조한다.³²⁾ 콘(Hans Kohn)은 모든 역사적 운동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도 과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³³⁾

민족형성에 연관된 요인이 다양한데도, 국가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민족의 형성에 국가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실상 민족형성의 초기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의미하는 것은 거꾸로 민족을 매개로 국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스위스나 미국의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라는 정치적 단위체가 여러 상이한 민족을 담는 그릇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간 국제체제의 긴장과 조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민족적 결합체로서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의 성취를 둘러싼 갈등이다. 선발 발전국으로서 유럽의 중심부 국가와 후발 발전국으로서 제3세계 주변부 국가의 발전 정책에 있어서 국가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 국가주의(statism)

32) Anthony D. Smith, "The Nation : Invented Imagined Reconstructed?", Marjorie, 1993, pp. 20-23.

33) Hans Kohn, "민족주의의 개념", 백낙청 (편),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1), pp. 17-18.

와 민족주의의 결합을 통한 동원과 통제가 두드러지는 것이 이를 증명해 줄 것이다. 국민 국가의 형성이 유럽의 경우에 하나의 연속적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전개되었다면, 비유럽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과정을 밟아왔다. 중국, 한국, 일본은 근대적 민족의 형성이 서구의 침략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국가 통합의 전통과 족이라는 전근대 민족체의 견고한 결합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는 민족적 단위로의 성장 이전에 유럽의 침탈로 인해 인위적인 민족 분열의 과정이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으며, 국가 수준에서의 부족적 단위의 불일치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지식인들의 순례와 인쇄 자본주의의 영향 등으로 인위적인 통합이 실현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통합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제3세계의 경우는 민족의 문제가 완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셈이다.³⁴⁾

스미스는 서구의 민족 혹은 민족 관계 이론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고 있는데³⁵⁾ 근대화론 이전, 근대화론, 그리고 근대화론 이후가 그것이다.

전근대론자들은 민족을 종족적·문화적 공동체가 정치화한 개념으로 보았다. 민족이란 장소, 시간, 역사 속에 침윤되어 존재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기본적으로 영속적이나 때로는 반복 출현하는 민족을 상징하고 있다. 즉 전근대론자들은 종족 정체성(ethnic identity)에 근거한 민족 관념으로 민족을 파악하고 있다.

1960년대 들어, 아시아·아프리카의 많은 식민지가 해방되고 국민국가의 건설이 요청되자, 근대론자(modernist)라고 불리는 연구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전근대론자들의 주장을 확장하여 민족 혹은 민족주의는 근대성의 산물로, 근대화나 근대적 조건의 형성, 그리고 근대화 정책 과정에서 나타

34) 임현진·정영철, 앞의 논문, pp. 7-8.

35) Anthony D. Smith, "The Nation: Invented, Imagined, Reconstructed?", Millenium 20, 1991.

난 현상으로, 조건 때문에 생겨난 것이므로, 조건이 사라지면 민족 혹은 민족주의도 사라지는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즉 세계적 범위에서도 근대화의 진행에 따라 근대적 질서로의 편입이 끝나면 민족주의는 쇠퇴할 것이라고 하였다. 근대론자들은 영토적 국가인 근대의 국민국가(nation-state)를 국민, 혹은 새로운 민족형성(nation-building), 대중 교육, 시민권 등을 통한 대중의 정치 참여라는 시민적 공동체로 파악하였다. 또한, 국제 정치에서 국민국가를 주요 분석 단위로 보았다. 이러한 국민국가 형성은 역할, 가치, 기대 등을 제도화하고 교통, 관료제, 언어, 교육, 미디어, 정당 등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³⁶⁾ 근대론자들은 민족 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근거한 국민적, 시민적 개념으로 민족을 파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엄격한 것은 아니며, 전근대론자의 주장과 서로 중첩되기도 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근대화론 이후의 민족에 대한 이론은 지난 10년간 탈민족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시기를 맞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 스미스는 탈민족 시대의 주요 흐름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민족 정체성 균열과 다원적 문화주의의 대두, 둘째, 민족주의에 페미니즘적 요소의 도입, 셋째, 족적 그리고 시민적 민족주의의 심화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넷째, 세계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현상과 민족 주권 및 민족 정체성에 대한 영향이라는 것이다.³⁷⁾

20세기의 마지막 10년간은 냉전적 세계 구조의 해체와 그에 따른 영향이 지배하는 시기였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으며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 구조가 해체되고 소련이 붕괴되는 등 민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36) 이진영, "한국의 민족 정체성과 통일을 위한 열린 교육 개념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5-1, 2001, p. 5.

37) Anthony D. Smith, "The Myth of the Modern Nation and the Myths of N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11/1. 1988, pp. 20-26.

부각되었다.³⁸⁾ 특히, 전세계적 범위로 진행된 자본주의의 위력은 정보, 테크놀로지 그리고 문화적 이미지 영역의 급격한 팽창과 결부되어,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세계화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화는 분열된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서구 사회에서 사회 결합의 근본 요소들인 종족정체성(ethnicity)의 부활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⁹⁾

역사적 뿌리, 신화, 기억 등의 종족 공동체적 요소는 세계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족정체성의 강조가 현재의 민족 및 국민국가의 체계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국제적 실체로서의 민족이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힘, 국민국가적인 질서의 틀은 무시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민족 개념에 대해서 더 넓은 지평을 열고자 하는 것이다.⁴⁰⁾

4. 한국 민족주의의 성격

(1) 단일 민족성의 신화와 국가주의 전통

한국, 중국, 일본은 예로부터 강력한 국가주의 전통을 지녀왔다. 특히 한국은 공통의 지리적, 문화적, 혈연적, 경제적 특징의 바탕 위에서 공고한

38) 스미스, 이재석 (역),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남지, 1996).

39) 강상중·요시미 순야, "혼성화 사회를 찾아서 : 내셔널리티의 저편으로", 『당대비평』, 2000.

40) 이진영, "한국의 민족 정체성과 통일을 위한 열린 교육 개념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5-1, 2001.

통합성을 형성하였고, 이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역사성은 한국이 비교적 강한 민족주의적 지향을 나타내게 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듯이 오랜 역사에 뿌리를 둔 민족주의적 지향은 외세의 침탈에 대한 저항 민족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근·현대사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한국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족형성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한국민들의 감정은 민족성의 단일함과 순수함, 그 역사적 유구함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한 배타적 민족 감정의 표출은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며, 국난에 맞서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이를 극복하자는 애국주의 이데올로기가 횡행하였다.⁴¹⁾ 이러한 민족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가족, 조직, 국가에 대한 일체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국 민족주의가 집단 의식, 애족주의, 애국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국가주의와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가주의와의 결합은 한편으로는 성장 이데올로기와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표현되면서 개발 연대에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또한 국가주의적 경향은 초기 발전의 국면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였지만, 그 이후 발전의 심화 과정에서는 제약을 가한다. 국가의 비대화가 건전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로의 진입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주의의 과잉은 시민의 권리보다 시민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여러 사회 부문의 자율성을 신장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국가주의는 전 지구화의 격랑 속에서 도전에 직면에 있으며,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⁴²⁾

41) 대표적인 보기로 IMF사태 때의 금모으기 운동을 예로 들 수 있다.

(2) 문화적 동질성과 집단주의적 사회조직

비록 근대사회로의 진입 과정에서 약간의 훼손은 있지만, 한국 사회에는 끈끈한 문화적 동질성이 있다.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은 가족, 조직, 국가 수준에서 사회 통합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교적 전통에 기초한 한국민들의 의식과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집단주의적인 성격으로 강하게 뿌리박혀 있다. 가족 수준에서의 가부장제에서 국가 수준에서의 정치적 권위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배면에는 유교적 가치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동질성은 주로 국민 통합의 기제로 작동해 왔다. 이는 한국의 문화가 본질적으로 일국가 일문화(one state one culture)라는 민족주의 신화에 부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강한 문화적 동질성은 외부 혐오적인(xenophobia) 태도, 배타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표출하기도 하여 근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 버리는 함정이 되기도 했다. 현재의 한국 문화는 근대화의 추진과정에서 서구화(Westernization)의 물결에 휩쓸려 자아 준거성이 약화됨으로써 우리 문화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래 문화와 외래문화의 혼합 현상이 이종이합(異種異合)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부터, 공사(公私) 논리의 공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혼합, 법과 규범 사이의 혼란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율과 희생정신, 집단주의, 조직에의 충성, 수직적 위계질서에 대한 순종 등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대세이고, 이런 경향이 세대간의 차이에 의해 보다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집단주의의 가치는 개체보다는 전체를 중요시 여김으로써 공동

42) 임현진·정영철, 앞의 논문, pp. 17-18.

체 형성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자율 신장과 사회의 민주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⁴³⁾

결국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 동질성은 집단주의적 사회조직의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동질성은 다양성과 이종성에 의해 그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집단주의도 개인주의로부터의 도전으로 복잡한 양태를 띄고 있다. 결론적으로 집단주의의 원리는 사회를 결속하여 유지시켜 주는 긍정적인 작용도 하지만, 권위주의와 맞물려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정적인 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다원적 탈민족 사회로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서구의 세계화와 탈민족주의에 관한 이론이 검토되면서 한국에서도 한국의 민족 혹은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서의 국가의 과잉과 사회집단에 대한 국가 통제 구조 그리고 민족 혹은 민족주의가 이러한 국가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

임지현의 연구는 한국에서 민족주의적인 담론이 가졌던 신화적 성격, 폭력성에 주목하면서, 민족이 지금까지 민중 위에 군림하면서 때로는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전통마저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하여 근대성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혈연적 성격은 유기체화하여 생명력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곧 한반도에서

43) 임현진·정영철, 앞의 논문, p. 19.

국가성(stateness)과 동일시되었다. 즉 한국에서의 민족주의 담론은 국민의 주권 등 개인적 정체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시민적 연대에 기초한 다양한 주체이어야 하고, 성과 계급과 같은 다른 정체성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⁴⁴⁾

1999년대 후반에는 여러 학술회의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한국에서의 민족 혹은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시민 공동체적 민족주의, 인간주의적 민족주의, 개방적 민족주의, 그리고 진보적 민족주의가 그것이다. 이런 논의는 고부웅과 박명규의 토론⁴⁵⁾에서 정리되고 있다.

고부웅은 민족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한국에서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서구의 민족이론의 영향으로, 비 서구의 민족 정체성과 소수민족의 정체성 연구가 한국에 수입되었고, 특히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논의에 기초한 정체성 성립을 한국 학계가 한국 역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민족 해체의 경향도 언급하는데, 지금까지 민족 담론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성 즉 지배 집단의 가치에 대해, 국경을 넘는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초민족(超民族) 정체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세계화에 따른 민족문제의 복잡성이다. 한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화를 받아들이면서, 한민족 정체성 논의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를 극복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박명규는 탈근대화, 문화, 지식에 대한 서구의 관심이 한국에서도 민족·민족주의 연구를 촉진시킨 것에 동의하면서,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아

44)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삼인, 1999).

임지현, "한반도 민족주의와 권력 담론 : 비교사적 문제 제기", 『당대비평』, 2000.

45) 고부웅, "탈민족시대, 민족주의의 미래 : 민족보다 중요한 주변부 집단의 정체성" ; 박명규, "문화론적 민족주의의 의의와 한계 : 역사적 맥락 무시한 맹목을 경계한다", 『교수신문』 (1999. 12. 13)

나라 한 사회의 근대성을 담보해 온 문화적 체계이자 개인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문화론적 이해에 역사 및 정치 경제학적 이해가 부가되어, 한국 현실과 결부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적 자유와 인간적 존엄성 속에서 공동체의 조직을 위한 정치체제와 세계 민족주의의 조화 문제

둘째, 한국은 아직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는 견해와 국민과 민족의 불일치(남북간, 한반도와 해외 한인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

셋째,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반도에서 민족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함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아시아나 세계로 관심을 넓히는 인식도 요구되며, 종족 민족주의나 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닌, 새로운 민족 인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홉스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민족과 민족주의는 새로운 세기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위치는 낮아질 것이고 역할도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경제는 세계경제로 넘어가고 현대 세계는 민족 국가의 단위를 넘어서 초국가적 형태로 재편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의 역사는 민족이나 민족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서 세계사의 역사로 쓰여져야 한다.⁴⁶⁾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로 인해 근대화의 과정이 지체되었고,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은 한국이 정치와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미국 등의 선진국에 종속적인 구조를 지니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종속성에서 탈피하고,

46) 홉스봄, 앞의 책, p. 241.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한 국가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Ⅲ. 사회과 교과서의 민족·민족주의 개념 분석

미국 사회과 교육 협회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과 교육은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을 통합시킨 학문이며 사회과 교육의 주요 목적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⁷⁾ 사회과는 사회현상을 다루는 교과이며 상당히 다양한 주제를 갖는 하위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과는 통합 교과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장에서는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국사, 사회, 도덕 교과간의 상이한 개념을 분석하고 이론적 개념과 교과서 분석에서 드러난 실제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통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드러난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민족·민족주의

교육과정은 교과의 구성과 교과서의 단원 설정, 교과서 편집에 그대로 반영되어 이것은 교과서에 반영되고 학생들에게 교수·학습된다. 우리의 사회과

47) NCSS(ed), *Expectation of Excellence : Curriculum Standards for Social Studies* (Washington: NCSS, 1994), p. 3.

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시대적 요청 때문이다. 또한 사회과가 갖는 교과목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며, 보통교육이 공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민족의 개념은 본고 2장 분석의 틀에서 살펴본 민족주의 이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회 교과서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은 민족의 주체성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 민족의 신성성과 국난 극복같은 한국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애국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민족주의를 다루고 있다. 교수 요목기에서부터 반공 교육이 강조되고, 방일 교육, 애국 애족과 경제발전 그리고 근로 윤리, 통일을 위한 의식 교육, 민족 주체성 등의 교육이 끊임없이 강조되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 왔다.

(1)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변화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의 사회과는 그 성격상 과목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 특징을 살펴보려면 지리 영역, 역사 영역, 일반 사회 영역의 과목에 대한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겠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사회과가 어떤 구조로 변천되어 왔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교과목의 편제 및 시간 배당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전체의 변천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수 요목기(1946~1954)는 미군정하에서 교수요목(教授要目)을 제정, 실시하였던 시기이다. 광복 후의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제국주의 교육 방식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기르는 일이었으며 그것

을 이념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를 위한 선도적인 교과로서 사회과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과로 출현되었다.⁴⁸⁾ 이 시기에는 교수요목만으로 도덕 교육과 반공 교육 내용을 수업 현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문교부의 장학 방침(1951~1954)에 이를 반영하여 교육하였다.⁴⁹⁾

제1 차 교육과정기(1954~1963)는 문교부가 미 군정기에 만들어진 교수요목을 개정하여 1955년에 공포한 것이다. 당시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과제는 반공 사상의 고취와 기술 교육 등이었으며, 특히 도덕 교육에 대한 사회, 국가적 요청에 따라 도덕과가 사회과에서 분리되어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⁵⁰⁾ 도덕교과에서는 체계적인 도의 교육과 함께 ‘애국·애족, 반공·방일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다.⁵¹⁾

제 2 차 교육과정기(1963~1973)는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 등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1962년부터 착수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혁신적인 정책적 전환을 하였다. 사회과의 목표는 반공과 민족 주체성의 확립, 근대화와 경제 재건, 민주국가 건설 등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다.⁵²⁾ 사회과에 ‘국민윤리’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개인 윤리보다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에 중점을 두었다.⁵³⁾ 1968년 12월 5일 ‘국민 교육 현장’을 선포하여 새로운 국민상의 수립을 교육의 지표로 삼았다.

제 3 차 교육과정기(1973~1982)는 유신 체제의 시기로서, 한국적 민주주의

48) 조상제·박제윤·노희방·최병모, 『교육부 사회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2001, p. 4.

49) 이우용·정세구·추병완·차우규·오석중, 『교육부 도덕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2001, p. 6.

50) 조상제 외, 앞의 책, p. 4.

51) 이우용 외, 앞의 책, p. 7.

52) 조상제 외, 앞의 책, p. 5.

53) 이우용 외, 앞의 책, p. 7.

의 토착화, 민족 주체성의 확립,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문제가 중요 이념이 되었다.⁵⁴⁾ 제 3 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에서는 사실상 사회과의 해체가 일어났다. 민족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사 교육을 강화했고, 이를 위해 국사를 별도의 독립 교과로 만들었다. 또, 반공 의식, 국가 의식의 고양을 위해 국민윤리를 수위(首位) 교과로 독립시켰다.⁵⁵⁾ 민족 의식은 오늘날의 지구촌의 관점과 국제 이해라는 측면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이해와는 구분이 되는 국가 이데올로기·족성의 민족주의가 강조되었다.

제 4 차 교육과정기(1981~1987)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민주 사회, 고도의 산업 사회, 건전한 사회, 문화 사회, 통일 조국)에 기대되는 인간상(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과 제 5 공화국의 출범에 따른 교육 개혁 조치를 고려하여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른 개정의 기본 방향은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 전인 교육의 충실, 과학 기술 교육의 강화에 두고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강조하고 있다.⁵⁶⁾

제 5 차 교육과정기(1987~1995)는 ① 교육 철학, 학문 내용, 교육 방법의 변화, ② 경제적 발전과 사회의 변화, ③ 현행 교육과정 공포 이후 7년 경과, ④ 국제 경쟁력의 강화 필요, ⑤ 교육의 질적 고도화에 따라 개정되었다. 제 4 차 교육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주체성, 창조성, 도덕성을 지닌 인간을 기른다는 기본 방향하에 개정되었다.⁵⁷⁾

제 6 차 교육과정기(1995~2000)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대북정책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장, 정보화, 국제화, 세계화와 과학·기술 문명의 급격한 발

54) 전숙자, 『사회과 교육의 새로운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2001), p. 33.

55) 조상제 외, 앞의 책, p. 6.

56) 조상제 외, 앞의 책, p. 7.

57) 조상제 외, 앞의 책, p. 8.

전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이 있었다.⁵⁸⁾ 급격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초·중등학교의 기초, 보통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룩한다는 목표 아래 미래 사회에 필요한 도덕성의 함양과 창의성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제 6 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에서는 많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국사가 사회과 안에 복귀하게 되었다. 국사가 사회과 안에 복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교과가 줄어 교육과정의 감량화가 이루어졌고, 시민 교육의 차원에서 본다면 시간적, 공간적 구조 속에서의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민적 자질 육성 교육이 가능해졌다고 하겠다. 또 역사 교육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국사와 세계사를 하나의 틀 속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⁵⁹⁾

제 7 차 교육과정기(2000~)의 사회과 편제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신설과 함께 많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7차 교육과정 10학년에서는 여러 단원에서 지구촌과 세계화의 문제,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동북아 국가 특히,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통일국가의 전통과 관련한 배타적인 민족주의 요소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제 7 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사회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사는 별도의 교과서가 있으나 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사회과에 흡수되었다.

58) 전숙자, 앞의 책, p. 36.

59) 조상제 외, 앞의 책, p. 9.

< 표 1 >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의 내용 체계⁶⁰⁾

영역 \ 학년	10 학년
인간과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와 지리 정보 ◦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 생활 공간의 형성과 변화 ◦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 ◦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인간과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국사> ◦ 한국사의 바른 이해 ◦ 선사 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 경제 구조와 경제 활동 ◦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 민족 문화의 발달
인간과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 정치 생활과 국가 ◦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

60) 조상제 외, 앞의 책, p. 24.

(2) 민족·민족주의 교육의 변화

해방 이후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민족주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민주주의 정치 이념이나 반공 이념과 결합하여 왔다. 1961년 유네스코의 국제 이해 교육 프로그램 협동 학교가 지정되었고 그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 이해의 태도와 국제 이해를 위한 객관적·개방적·창조적 사고가 각급 학교의 사회과 목표로서 반영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국제 개방화 추세는 종래 민족 의식 교육이 자칫 빠지기 쉬웠던 국수주의적 경향과 국가주의 이념과의 과도한 밀착을 지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윤리 교과서의 개정이 이루어졌고⁶¹⁾ 이러한 맥락에서 6차 교육과정의 윤리 교과서는 민족·민족주의 문제가 비교적 상세한 개념으로 다루어졌다고 보여진다.

6차 교육과정 윤리 교과서 3단원 국가와 윤리 2장 ‘민족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는 민족의 객관적 구성 요소는 혈연, 지연, 언어, 역사, 문화, 경제생활 등이며 주관적 요소는 민족 의식이나 일체감같은 정신 및 의식적 측면이며 민족이란 객관적 요소에 관계없이 운명 공동체에 속한다는 공통된 믿음을 갖는 집단으로 주관적 요소가 중시된다고 소개하고 있다.⁶²⁾ 민족주의(nationalism)는 nation의 정의에 따라 내용이 일정하지 않지만 자유주의 시대에는 국민주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국가주의, 반식민주의 시대에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이 짙었으며 특정한 국민국가의 민족주의는 다양하고 보편적인 이데올로기와 결합함으로써 거대한 역사적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민국가가 가질 수 있는 민족주의의 부정적

61) 최용규, 앞의 논문, pp. 239-240.

62) 서울대학교사범대학 1종도서 편찬위원회, 『고등학교 윤리』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6), pp. 142-143.

측면으로 편협한 이익과 결부된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반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의 전용을 들고 있으며, 한국 민족주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통합

둘째,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정신적인 원동력

셋째, 민족 통일을 위한 열정과 에너지의 원천

넷째, 세계 공동체 속에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것이다.⁶³⁾

7차 교육과정에서는 윤리 교과가 도덕 교과로 교과명이 변경되었다. 도덕 교과로 명칭이 바뀐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단원이 삭제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7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내용이 짧지만 비교적 정확한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 다음은 민족주의에 대한 국사 교과서의 설명이다.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민족의 생활·전통·문화를 보존하여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그 독립성을 유지 발전시킬 것을 추구하는 사상이나 움직임일 일컫는다. 19세기 후반의 민족주의는 공격적·팽창적 민족주의와 방어적·저항적 민족주의로 나누어진다.⁶⁴⁾

민족이라는 용어가 지나친 민족 주체성의 강조로 이어진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은근히 조장한다면 지구촌을 지향하는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앞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에는 민족·민족주의의 정확한 이론적 배경이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63) 서울대학교사범대학 1종도서 편찬위원회, 『고등학교 도덕』(서울: (주)지학사, 2002), pp. 142-151.

64)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서울: (주)두산, 2002), p. 15.

2.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주의

근대국가가 시작된 이후 공교육의 보편적인 목표는 국민의 형성이었다. 국가간의 전쟁이나 경쟁에서 자국의 생존을 지키고,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국민적 통합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독일같은 분권적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국민 감정의 육성을 강조하였고, 미국은 사회 통합을 위해 올바른 시민의 육성을 사회과의 목표로 내세웠다. 한편 전후의 일본은 사회 연대성과 개인의 민주 의식의 공존을 목표로 하는 공민교육을 지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조 속에서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실현해야 했다. 그러나 사회 통합에 앞서 식민지 시대의 상처받은 민족적 감정의 치유가 우선적으로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공동체 의식의 확립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서 강조된 것이 애국 애족 운동이었다. 해방 직후 국어와 국사를 중심으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고취하는 민족 의식 교육과 국가 의식 교육을 실천하였으며, 동시에 사회과의 본질인 민주 시민 교육의 원리를 주입하고자 노력하였다. 해방 이후의 사회과 교육은 민족 의식을 감정적 기반으로 하고 민주 시민 교육을 이상으로 하는 이른바 국민 교육의 현실적 요구를 중시하는 복합적, 중층적 성격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과의 복합적 성격은 사회과 교육의 본질 및 민족 의식 교육의 위상을 이해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어 왔다. 한국의 사회과가 종합 교과로서의 특성을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한 가운데 민족 의식 교육은 국사의 몫으로, 민주 시민 교육은 사회

분야의 몫으로 간주해 왔기에 민족 의식 교육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민족 의식 교육의 올바른 위상을 확인하는 일은 오히려 민족 의식 교육이 실천되어 온 과정과 민족 의식 함양의 방법적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⁶⁵⁾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교과가 갖는 이러한 민족·민족주의 개념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 고취, 둘째 민족주체성과 자주 독립 정신의 고취, 셋째 국가 발전에 관한 사명감 고취, 넷째 통일의 역사적 사명감 인식이 그것이다. 이를 7차 교육과정의 국사, 도덕,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 고취

민족 의식 교육은 민족적 감정 즉 민족적 자부심, 민족 문화에 대한 애정, 애국심과 충성심 또는 적대적 국가에 대한 적대심 등의 고취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감정적 차원의 민족 의식의 함양은 주로 역사적 내용 중 감동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만한 사실을 부각시키고, 때로는 비학문적인 과장도 첨가하여 민족적 감정을 애국심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승화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흔히 활용된다. 이 접근법에서는 객관성이나 진실성보다는 오히려 감동적 효과를 우선시키며, 개개인의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 본래의 목적보다 체제 유용성을 앞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국사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1단원의 1장에서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슬기를 발휘하고 노력을 기울여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 문화는 다른 어느 민족의 그것

65) 최용규, 앞의 논문, pp. 23-24.

과도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온 문화이다.⁶⁶⁾ 물론 7차 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할 뿐, 예전과 같이 단일 민족임을 강조하지 않는다.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러한 서술 경향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지역에서 문화를 발전시켜 온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 애국심 또는 민족 주체 사관과 혼재되어 나타난 경향이라고 보여진다.

국사 교과서는 우리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강조하고 동북아의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 민족 문화의 형성에 중국 그리고 서역 문화의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국사 교과서는 그 영향과 전파 경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끼친 영향과 우리 문화의 전파 경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진취적이고 주체적으로 서역과 중국의 문화를 수입했고 상대적으로 문화 후진국인 일본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약탈하거나 수용하여 일본 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고대 우리 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부분에 대한 국사 교과서 내용이다.

삼국시대에는 불교를 수용하여 각 분야에서 다양한 불교문화가 발전하였다. 통일 신라는 삼국의 문화를 종합하고, 당 및 서역의 문화를 수용하여 고대 문화의 꽃을 피웠고, 발해는 당 문화를 받아 들여 독자적 문화를 이룩하였다.⁶⁷⁾

삼국의 문화는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천자문과 논어 등의 학문, 화가와 공예 기술, 종이와 떡의 제조 기술, 불교 전파, 고분 벽화, 선박 제조 기술, 제방 쌓는 기술, 삼국의 음악

66)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14.

67)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240.

등이 일본에 전해졌으며 이는 야마토 조정의 성립과 7세기 경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삼국 문화에 이어 통일신라의 문화도 일본에 전해졌다. 불교와 유교 문화, 특히 심상에 의하여 전해진 화엄 사상은 일본 화엄종을 일으키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⁶⁸⁾

임진왜란은 일본의 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활자, 그림, 서적 등을 약탈해 갔고, 성리학자와 활자 인쇄공, 도자기 기술자들을 잡아와 일본의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⁶⁹⁾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의 고취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회고나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⁷⁰⁾도 있으나 역사의 인식에서 정신을 중시하는 관념론으로 흘러버릴 수도 있다. 또한 사회 변화의 원동력과 사회구조의 파악을 경시하거나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숨김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저해할 수도 있다. 잘못된 민족주의는 국수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다른 민족에 배타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나 일본의 황국사관이 그것이다.⁷¹⁾

민족 의식 교육의 한 단계 높은 수준은 민족적 자각이다. 이것은 과거의 조상과 오늘의 내가 공존한다는 역사 의식과 민족의 문화를 매개로 한 연대 의식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민족 의식의 교육은 주입을 위주로 한 설명보다는 학생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민족적 자각은 곧 국민적 자각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⁷²⁾

68)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p. 260-261.

69)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113.

70)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서울: 삼지원, 2001), p. 8.

71) 전종익, 앞의 논문, p. 46.

72) 최용규, 앞의 논문, pp. 23-24.

(2) 민족 주체성과 자주 독립 정신 고취

국사 교과서에서 신채호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묘청의 천도 운동에서 김부식이 이겼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 만약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다.⁷³⁾ 이는 우리 역사에 있어 줄기차게 이어졌던 사대주의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자 하는 인식의 결과이다. 또한 주체성과 자주 독립 정신의 부족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타까움의 정서는 다시 간절한 애국심의 호소로 이어진다.

국사 교과서는 선사시대에서 시작된 우리 민족의 동족 의식은 고려 시대에 이르러 일반 민중을 포함한 강력한 민족 의식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국가 사회를 이끌어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족이나 민족 의식은 19세기말 근대 국가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개념이다. 민족은 초역사적 개념이 아니며 항구적이거나 유구하지도 않다. 수세기 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역사성을 갖는 개념이다. 과연 고려 시대의 천민에게 오늘날과 같은 민족 의식이 있었을까? 구한말에는 소작농, 노동자 또한 민족 의식이 발현하여 항일운동을 일으킨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과연 구한말 소작인, 노동자들은 민족 의식으로 일제에 항거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져 본다.

다음은 해당 부분에 대한 국사 교과서 내용이다.

고려에서는 강렬한 민족 의식이 국가사회를 이끌어 나갔다. 이러한 민족 의식은 외세의 간섭없이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였다는 자신감과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방 유목 민족들과 항쟁하면서 더욱 성장하였다.⁷⁴⁾

73)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82.

고려가 몽고의 침입에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일반 민중들이 용감하게 대항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노비와 부곡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몽고에 대항하여 싸웠다.⁷⁵⁾

정치적, 사회적으로 각성한 소작농들은 생존권 투쟁의 수단으로 소작쟁의를 벌였으나 점차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해 갔다.⁷⁶⁾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성장하여 점차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⁷⁷⁾

지나친 민족 주체성의 강조는 한편으로 학문적 연구 성과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결합하여 비역사적인 인식까지도 빚어내고 있다. 고조선과 그 뒤를 이어 출현했던 국가들에 대한 서술이 그것이다. 먼저 고조선의 건국을 B.C. 233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보다 수세기씩 앞서서 금속문화를 발전시켜 온 중국⁷⁸⁾보다도 앞서서 국가가 출현한 결과가 된다. 이런 관점은 구석기 문화 발굴 결과를 조작해 낸 것이 밝혀져 세계를 놀라게 만든 일본 우익 학계의 경우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한국사의 특수성과도 무관한 것으로, 역사를 발전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에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74)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92.

75)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87.

76)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361.

77)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362.

78) 은나라는 현행 세계사 교과서에서 B.C. 2000년경 허난성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국사』는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의 발달과 함께 B.C.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하지만 같은 책 p. 29에서 청동기 시대가 한반도에서는 B.C. 10세기 만주 지역에서는 B.C. 15-13세기에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3) 국가 발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이전의 사회 교과서에서는 국가 발전이 민족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하고 국민들은 헌신해야 하는 당위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가 발전은 당위적 가치로서 주입되기보다는 학생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행한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에는 사회과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개인의 발전 및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인간 형성과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이 목표라고 서술하고 있다.⁷⁹⁾

7차 교육과정의 사회 교과서는 21세기 한국의 발전 전략을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의 모색, 핵심 산업의 육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⁸⁰⁾ 세계 각국이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키며 그 안에서 인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공유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문화의 세계화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우리 문화의 발전 방향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문화를 비판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세계에 드러내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⁸¹⁾

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과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민족의 발전 전략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 세계에 드러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사 교과서는 체제의 모순과 국권 박탈, 외세라는 한계에 의해 국가 발

79) 조상제 외, 앞의 책, p. 19.

80) 김주환 외 8인, 『고등학교 사회』 (서울:(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pp. 326-328.

81) 김주환 외 8인, 앞의 책, 2002, pp. 300-302.

전이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의 선각자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한 민족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저력으로 국가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소개하고 있다. 아래에서 국사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살펴보자.

조선 후기 양반 사회의 모순이 심각해졌음에도 당시의 지배 이념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성리학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18세기 실학이 발달하였다. 실학자들은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목표로 비판적이고 실증적인 논리로 사회 개혁론을 제시하였다.⁸²⁾ 일제는 한국을 재정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하게 하였고, 이 결과 정부가 짊어진 외채는 총 1,300만원이나 되어 상황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에 국민의 힘으로 국채를 상환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으나 통감부의 간교한 방해로 인하여 좌절되었다.⁸³⁾ 우리나라는 개항 이후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근대 민족 경제의 토대를 만들어 나갔다. 특히, 일본의 무역 독점, 이권 침탈, 금융 지배 등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여 우리 민족은 근대적 회사와 공장 등을 설립하고 민족자본을 육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광복 후 우리 민족은 사회적 혼란, 국토분단, 6·25전쟁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립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⁸⁴⁾

민족 의식 교육의 첫 단계가 애국심의 고취라면 다음 단계는 민족의 발전 과제를 인식하고 민족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함양하는 단계이다. 민족적 과제의 인식은 객관적, 인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82)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313.

83)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359.

84)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356.

내면화는 주관적, 정의적 차원의 가치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민족적 과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당위적 가치로서 주입되기보다는 발전적 방법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상의 민족 의식 교육은 국가·사회의 유지, 발전과 통합을 위주로 하는 사회적 차원의 민족 의식 교육이며, 교육의 본래의 목표인 민족 구성원 개체로서의 인간 형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의 민족 의식 교육은 개체의 발전 즉 개인의 주체 의식과 민족 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민족 의식 교육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방향의 민족 의식 교육이야말로 민주 시민 교육의 기본 정신과도 부합되고 사회과의 본질에도 접근하는 것이라 하겠다.⁸⁵⁾

(4) 통일의 역사적 사명감 인식

국사 교과서와 도덕 교과서는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통일국가였음을 강조한다. 국사 교과서는 신라의 삼국 통일과 같은 외세를 이용한 통일에 대한 한계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사 교과서는 통일 이후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민족 통일은 국가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며 통일을 민족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사적 사명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부분에 대한 국사 및 도덕 교과서 내용의 일부이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외세를 이용했다는 점과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경계로 한 이남의 땅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녔으나 고구려와 백제의 전통을 수용하고, 경제력을 확충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⁸⁶⁾ 고려의 건국을 민족의 완전한 통합으로 그리고, 고려의 건국은 후삼

85) 최용규, 앞의 논문, pp.23-24.

국뿐만 아니라 발해의 고구려계 유민들 까지 포함한 민족의 재통일로 기록하고 있다.⁸⁷⁾ 통일은 우리 민족의 경제 도약, 사회 갈등 해소, 국제적 지위 향상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한민족의 위상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21세기의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민족적 역량을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⁸⁸⁾

7차 도덕 교과서는 분단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통일의 방향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 진다.

도덕 교과서는 절반 정도 분량을 통일 문제에 할애하고 있다. 『고등학교 도덕』 교사용 지도서는 통일 문제의 학습에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밝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내외적 통일 환경과 함께 남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통일 정책을 비교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과제들을 제시한다.⁸⁹⁾

2개의 단원으로 구성된 교과서의 2단원. ‘민족 통일 문제와 통일 한국의 모습’에서 3개의 장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다. 1장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 현실’, 2장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3장 ‘민족 공동체의 변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이 그것이다.

종래의 통일 문제는 민족 의식 교육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세 등의 당위적 가치를 주입하는 것이 교과서의 일반적인 서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의 주입은 사회과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아동의 주체적, 창조적,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신장의 목표와 상충되는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민족이 갖는 당위적 가치는 교

86)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60.

87)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73.

88) 서울대학교사범대학 1종도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153.

89) 이우용 외, 앞의 책, p. 29.

사와 교과서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입되기보다 아동의 주체적, 객관적인 사실 탐구와 가치 탐구에 의해 내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⁹⁰⁾ 7차 교육과정 이후의 우리 사회과 교과서가 국사 교과에서는 통일 문제에 대해 민족 의식 교육 차원의 당위성 주입에서 많이 탈피한 듯 보인다. 또한 도덕 교과에서는 통일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객관화하여 접근한 점이 바람직스러워 보인다.

90) 최용규, 앞의 논문, p. 245.

IV. 민족주의 교육의 효과 : 고등학교 학생들의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1. 설문조사의 목적과 문제

(1) 설문조사의 목적

이 장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성향, 세계 지향적 의식성향,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민족형성의 요인 인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민족,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6차 교육과정의 윤리 교과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3학년과 7차 교육과정에서 그 단원이 삭제되고 교과명이 도덕으로 바뀐 교과서를 학습한 2·3학년 학생들의 민족과 문화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2) 설문조사의 문제

위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성향은 어떠하며, 2학년과 3학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고등학교 학생들의 세계 지향적 의식성향은 어떠하며 2학년과 3학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셋째,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국 중심적 의식성향은 어떠하며 2학년과 3학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넷째, 고등학교 학생들의 민족형성의 요인에 관한 인식은 어떠하며 2학년과 3학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다섯째, 고등학교 학생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은 어떠한가?

(3) 가설의 진술

첫째,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세계 지향적 의식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자국 중심적 의식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민족형성의 중요 요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표본추출과 자료처리

본 조사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조사지역을 부산광역시로 국한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임의적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배포 수거 방식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2003년 3월 현재 부산광역시의 4개 구에서 한

학교씩을 선택하여 고등학교 2학년 145명(51.6%), 3학년 136명(48.4%) 총 281명을 표본으로 선정했다. 응답자 중 남학생은 139명(49.5%), 여학생은 142명(50.5%)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V 10.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으로 자료를 처리하였으며 chi-sq분석으로 가설의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2. 설문조사 내용분석

(1) 설문 항목 및 응답빈도

< 표 2 > 설문 항목 및 응답빈도⁹¹⁾

항목	응답 (단위 : 명, %)
1.민족 간 우·열이 있다.	매우 그렇다(19, 6.8) 그런 편이다(116, 41.3) 그렇지 않은 편이다(74, 26.3) 전혀 그렇지 않다(72, 25.6)

91) 설문지의 구성은 김신일·김영화·김현덕, 『국제 이해교육의 실태와 국제비교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pp. 50-66.를 주로 참고하였다.

항목	응답 (단위 : 명, %)
2.후진국 문화는 열등하다.	매우 그렇다(22, 7.8) 그런 편이다(98, 34.9) 그렇지 않은 편이다(91, 32.4) 전혀 그렇지 않다(70, 24.9)
3.후진국 문화는 존중할 필요없다.	매우 그렇다(9, 3.2) 그런 편이다(34, 12.1) 그렇지 않은 편이다(104, 37) 전혀 그렇지 않다(134, 47.7)
4.우리보다 인류의 복지가 우선이다.	매우 그렇다(21, 7.5) 그런 편이다(122, 43.4) 그렇지 않은 편이다(111, 39.5) 전혀 그렇지 않다(27, 9.6)
5.적대국이라도 식량 원조를 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65, 23.1) 그런 편이다(160, 56.9) 그렇지 않은 편이다(42, 14.9) 전혀 그렇지 않다(14, 5.0)

항목	응답 (단위 : 명, %)
6.세계 평화를 위해 국군을 파병한다.	매우 그렇다(27, 9.6) 그런 편이다(86, 30.6) 그렇지 않은 편이다(106, 37.7) 전혀 그렇지 않다(62, 22.1)
7.우리 경제보다 세계의 환경 보호가 우선이다.	매우 그렇다(62, 22.1) 그런 편이다(134, 47.7) 그렇지 않은 편이다(68, 24.2) 전혀 그렇지 않다(17, 6.0)
8.평등한 세계를 위해 생활 수준을 희생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3, 1.1) 그런 편이다(51, 18.1) 그렇지 않은 편이다(130, 46.3) 전혀 그렇지 않다(97, 34.5)
9.세계를 위해 불리한 일도 한다.	매우 그렇다(4, 1.4) 그런 편이다(104, 37) 그렇지 않은 편이다(135, 48) 전혀 그렇지 않다(38, 13.5)
10.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다.	매우 그렇다(63, 22.4) 그런 편이다(119, 42.3) 그렇지 않은 편이다(83, 29.5) 전혀 그렇지 않다(16, 5.7)

항목	응답 (단위 : 명, %)
11.우리 문화는 가장 우수하다.	매우 그렇다(61, 21.7) 그런 편이다(148, 52.7) 그렇지 않은 편이다(58, 20.6) 전혀 그렇지 않다(14, 5.0)
12.우리나라는 최대 강국이 될 것이다.	매우 그렇다(99, 35.2) 그런 편이다(98, 34.9) 그렇지 않은 편이다(64, 22.8) 전혀 그렇지 않다(20, 7.1)
13.혈연은 민족 국가의 필수요소이다.	매우 그렇다(35, 12.5) 그런 편이다(103, 36.7) 그렇지 않은 편이다(122, 43.4) 전혀 그렇지 않다(21, 7.5)
14.민족 의식이 민족 국가의 필수요소이다.	매우 그렇다(98, 34.9) 그런 편이다(136, 48.4) 그렇지 않은 편이다(42, 14.9) 전혀 그렇지 않다(5, 1.8)

(2) 빈도분포 분석

(1)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 경향을 알기 위해 ‘세계는 우수한 민족과 열등한 민족으로 나눌 수 있다.’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6.8% ‘그런 편이다’ 41.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3% ‘전혀 그렇지 않다’

25.6%로 응답해 ‘민족 간 우열의 존재’에 대해서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2)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 경향을 알기 위해 ‘후진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보다 뒤떨어진다.’ 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7.8% ‘그런 편이다’ 3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4% ‘전혀 그렇지 않다’ 24.9%로 응답해 57.3%의 학생들이 ‘선진국·후진국의 문화 간 우열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3)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 경향을 알기 위해 ‘후진국의 문화는 존중할(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3.2% ‘그런 편이다’ 12.1%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0% ‘전혀 그렇지 않다’ 47.7%로 응답해 84.7%의 학생들이 ‘후진국의 문화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세계 지향적 의식 경향을 알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인류의 복지가 우선이다.’ 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7.5% ‘그런 편이다’ 43.4% ‘그렇지 않은 편이다’ 39.1% ‘전혀 그렇지 않다’ 9.6%로 응답해 ‘우리나라보다 인류의 복지가 우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5) 세계 지향적 의식 경향을 알기 위해 ‘이념이 달라도 식량 원조를 해야한다.’ 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23.1% ‘그런 편이다’ 56.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9% ‘전혀 그렇지 않다’ 5.0%로 응답해 80.1%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이념과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의 식량 원조

를 해야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세계 지향적 의식 경향을 알기 위해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국군을 파병한다.’ 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9.6% ‘그런 편이다’ 30.6%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7% ‘전혀 그렇지 않다’ 22.1%로 응답해 40.2%의 학생들이 찬성한 반면, 59.8%의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자국 중심적 의식 경향을 알기 위해 ‘우리의 경제발전 보다 지구의 환경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22.1% ‘그런 편이다’ 47.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2% ‘전혀 그렇지 않다’ 6.0%로 응답해 69.8%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보다 지구의 환경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자국 중심적 의식 경향을 알기 위해 ‘모든 나라의 평등한 생활수준을 위해 우리의 생활수준을 낮출 수 있다.’ 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1.1% ‘그런 편이다’ 18.1% ‘그렇지 않은 편이다’ 46.3% ‘전혀 그렇지 않다’ 34.5%로 응답해 80.8%의 학생들이 ‘모든 나라의 평등한 생활수준을 위해 우리의 생활수준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자국 중심적 의식 경향을 알기 위해 ‘우리나라에 불리한 일이라도 세계 인류를 위한 일은 해야 한다.’ 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1.4% ‘그런 편이다’ 37.0% ‘그렇지 않은 편이다’ 48.0% ‘전혀 그렇지 않다’ 13.5%로 응답해 61.5%의 학생들이 ‘세계 인류를 위한 일이라도 우리나라에 불리한 일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한국민이라는 자긍심 정도를 알기 위해 ‘우리 민족은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22.4% ‘그런 편이다’ 4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5% ‘전혀 그렇지 않다’ 5.7%로 응답해 64.8%의 학생들이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한국민이라는 자긍심 정도를 알기 위해 ‘우리 문화는 가장 우수하다.’ 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21.7% ‘그런 편이다’ 52.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6% ‘전혀 그렇지 않다’ 5.0%로 응답해 74.4%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는 다른 어떤 나라의 문화보다 우수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한국민이라는 자긍심 정도를 알기 위해 ‘우리나라가 최대 강국이 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35.2% ‘그런 편이다’ 3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8% ‘전혀 그렇지 않다’ 7.1%로 응답해 70.1%의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최대 강국이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민족의 형성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기 위해 ‘혈연이 민족 국가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기본 요소다.’ 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12.5% ‘그런 편이다’ 36.7% ‘그렇지 않은 편이다’ 43.4% ‘전혀 그렇지 않다’ 7.5%로 응답해 ‘혈연이 민족 국가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기본 요소’ 라는 물음에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14) 민족의 형성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기 위해 ‘민족 의식이

혈연보다 더 중요한 민족 국가의 형성 요인이다.’ 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34.9% ‘그런 편이다’ 48.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9% ‘전혀 그렇지 않다’ 1.8%로 응답해 83.3%의 학생들이 ‘민족 의식이 혈연이나 지연보다 더 중요한 민족 국가의 형성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의 항목을 3개의 새로운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1번에서 3번까지의 항목을 ‘문화상대주의’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묶고 응답 점수를 합하여 3-5점까지에 해당되는 학생은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 경향이 낮은 것으로 6-9점까지의 학생은 중간으로 10-12점까지의 학생은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 경향이 높은 것으로 구분했다.

4번에서 6번까지의 항목을 ‘세계 지향’이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묶고 응답 점수를 합하여 3-5점까지에 해당되는 학생은 세계 지향적 의식 경향이 높은 것으로 6-9점까지의 학생은 중간으로 10-12점까지의 학생은 세계 지향적 의식 경향이 낮은 것으로 구분했다.

7번에서 9번까지의 항목을 ‘자국 중심’이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묶고 응답 점수를 합하여 3-5점까지에 해당되는 학생은 자국 중심적 의식 경향이 높은 것으로 6-9점까지의 학생은 중간으로 10-12점까지의 학생은 자국 중심적 의식 경향이 낮은 것으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변수들을 교차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성향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학년’과 ‘문화상대주의’라는 변인을 교차 분석해 보았다.

< 표 3 >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성향

구분 \ 대상	2학년(%)	3학년(%)	계(%)
낮음	57(39.3%)	39(28.7%)	96(34.2%)
중간	81(55.9%)	92(67.6%)	173(61.5%)
높음	7(4.8%)	5(3.7%)	12(4.3%)
계	145(100%)	136(100%)	281(100%)

chi-sq= 8.026, 유의 확률 : 0.532

위의 표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성향이 낮은 학생이 2학년 39.3% 3학년 28.7%로 나타나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성향에서 2학년이 3학년보다 10.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hi-sq 테스트의 결과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둘째,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세계 지향적 의식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학년’과 ‘세계 지향’이라는 변인을 교차 분석해 보았다.

< 표 4 > 세계 지향적 의식성향			
구분 \ 대상	2학년(%)	3학년(%)	계(%)
낮음	11(7.6%)	9(6.6%)	20(7.1%)
중간	116(80%)	111(81.6%)	227(80.8%)
높음	18(12.4%)	16(11.8%)	34(12.1%)
계	145(100%)	136(100%)	281(100%)
chi-sq= 12.640, 유의 확률 : 0.18			

위의 표에 나타난 바로는 2학년과 3학년의 세계 지향적 의식성향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chi-sq 테스트의 결과도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세계 지향적 의식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셋째,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자국 중심적 의식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학년’과 ‘자국 중심’이라는 변인을 교차 분석해 보았다.

< 표 5 > 자국 중심적 의식성향			
구분 \ 대상	2학년(%)	3학년(%)	계(%)
낮음	4(2.7%)	7(5.1%)	11(3.9%)
중간	111(76.6%)	112(82.4%)	223(79.4%)
높음	30(20.7%)	17(12.5%)	47(16.7%)
계	145(100%)	136(100%)	281(100%)
chi-sq= 7.656, 유의 확률 : 0.468			

위의 표에서는 자국 중심적 의식성향이 높은 학생이 2학년 20.7% 3학년 12.5%로 나타났고, 의식성향이 낮은 학생이 2학년 2.7% 3학년 5.1%로 나타나 2학년의 자국 중심적 의식성향이 3학년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hi-sq 테스트의 결과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자국 중심적 의식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넷째,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민족형성의 중요 요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학년’과 ‘민족형성을 위한 필수요소인 혈연’, ‘학년’과 ‘민족형성을 위한 필수요소인 민족 의식’을 각각 교차 분석해 보았다.

< 표 6 > 민족형성을 위한 요소로서 혈연에 대한 인식			
구분 \ 대상	2학년(%)	3학년(%)	계(%)
필수요소이다.	78(53.8%)	65(47.8%)	143(50.9%)
필수요소 아님	67(46.2%)	71(52.2%)	138(49.1%)
계	145(100%)	136(100%)	281(100%)
chi-sq= 1.212, 유의 확률 : 0.75			

< 표 7 > 민족형성을 위한 요소로서 민족 의식에 대한 인식			
구분 \ 대상	2학년(%)	3학년(%)	계(%)
필수요소이다.	117(80.7%)	117(86.0%)	234(83.3%)
필수요소 아님	28(19.3%)	19(14.0%)	47(16.7%)
계	145(100%)	136(100%)	281(100%)
chi-sq= 6.223, 유의 확률 : 0.101			

위의 표를 보면 혈연이 민족 국가 형성의 필수요소이다. 라는 질문에 2학년의 53.8%가 필수요소라고 답하여 47.8%를 나타낸 3학년보다 6%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민족 의식이 혈연보다 더 중요한 민족 국가의 형성 요인이다. 라는 문항에 2학년의 경우 80.7%를 나타내고 있어 86%를 나타내고 있는 3학년의 경우 보다 5.3% 적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혈연이나 지연은 민족 국가 형성의 객관적 요소이며 민족 의식은 주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민족·민족주의에서는 혈연·지연 보다 민족 의식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더욱 중요한 민족 국가의 형성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3학년이 2학년보다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hi-sq 테스트의 결과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민족형성의 중요 요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3.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 경향에서는 ‘낮다’ 혹은 ‘높다’고 할만한 뚜렷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만 84.7%의 학생들이 후진국의 문화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교차 분석의 결과 2학년 학생들의 문화 상대주의적인 경향이 3학년 학생보다 10.6%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지향적 의식 경향의 조사에서도 ‘낮다’ 혹은 ‘높다’고 할만한 뚜렷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만 80.1%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이념과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의 식량 원조를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교차 분석의 결과 2학년과 3학년의 세계 지향적 의식 경향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 중심적 의식 경향의 조사에서는 부산광역시 고등학생들의 자국 중심적 의식 경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69.8%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보다 환경보호가 우선’이라고 답하여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차 분석의 결과 2학년의 자국 중심적 의식성향이 3학년보다 8.2%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민이라는 자긍심의 조사에서는 ‘높다’고 할 만큼 뚜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민족형성의 중요 요인에 대한 인식의 조사에서는 83.3%의 학생들이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 분석의 결과 민족 의식을 혈연보다 중요한 민족 국가의 형성 요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3학년의 경우 5.3%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차 교육과정의 윤리 교과서 III 단원의 2장 민족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는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으나 7차 교육과정의 달라진 교과서에는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다루는 별도의 단원이 없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달리하여 학습한 부산지역 고등학교 2·3학년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은 다를 것이라는 가정 아래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경향’, ‘세계 지향적 의식경향’, ‘자국 중심적 의식경향’, ‘민족형성의 중요 요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4개의 가설을 세워 검증을 해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유의확률을 나타내지 못해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7차 교육과정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6차 교육과정에 의한 오랫동안의 학습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타 교과(사회과 이외의)에서 학습했을 수 있는 민족주의 개념,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영향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의 상호작용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편의 영향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었던 2·3학년의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다 좁게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 민족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통일국가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근세기에 들어서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와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한 최대의 피해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 2차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으나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조 속에서 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았다. 이후 우리나라는 독립 국가의 건설과 함께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통교육은 국가 공동체 의식의 확립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으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교육이념으로 표명되었다.

해방 이후 국사를 중심으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고취하는 민족 의식과 국가 의식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민족 의식교육의 감정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또한 사회과에서는 사회과의 본질인 민주 시민 교육의 원리를 주입하여 국민 교육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사회과가 민족 의식교육은 국사의 몫으로 민주 시민 교육은 사회 분야의 몫으로 간주해 온 전통이 아직도 상존하는 이유는 이러한 맥락 때문으로 생각된다.

사회과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실현 및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경험하도록 하며, 전통 문화의 이해를 통한 문화 정체성의 확립과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족 의식 교육에서도 강제적 주입이나, 무비판적 수용과 같은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겠다.

국가와 민족은 근대 역사의 산물이며 민족형성은 객관적 요소인 혈연이나 지연의 존재를 전제로 주관적 요소인 민족 의식에 의해 형성된다. 민족

· 민족주의는 19세기 산업화와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는 초역사적 개념이 아니며 세계화가 진전된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역사성을 가진다. 민족주의 개념은 nation이라는 단어의 다의성과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근대의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족주의 형성의 견해가 다양하지만 결국 근대화 또는 산업화와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의 세 가지 유형은 팽창적 민족주의, 저항적 민족주의, 근대화 지향 민족주의다. 팽창적 민족주의는 통합적 성격이 강하고 저항적 민족주의는 해방적 성격이 강하다. 근대화 지향 민족주의는 해방의 성격을 내포하지만 통합적 성격이 강하다.

한국 민족주의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오랫동안 공통의 지리적, 문화적, 혈연의 바탕을 토대로 한 단일 민족성의 신화와 애국 애족을 바탕으로 한 국가 중심성이다. 둘째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문화적 동질성과 집단주의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민족주의의 성격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발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개인의 자율성 신장과 사회 민주화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민족과 민족주의는 새로운 세기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위치는 낮아질 것이고 역할도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민족 국가의 단위를 넘어서 초국가적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해방 이후 7차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편과 더불어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민족·민족주의를 다양하게 다루어 왔다. 반공, 방일, 애국 애족, 경제발전, 근로 윤리, 통일 문제, 민족 주체성 등의 문제들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해방 이후 애국애족·민족 의식 교육은 주로 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민주 시민 교육은 사회·도덕에서 다루어져 왔다.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교과가 갖는 이러한 민족·민족주의 개념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민족적 자부심·애국심 고취, 둘째 민족 주체성과 자주 독립 정신의 고취, 셋째 국가 발전에 관한 사명감 고취, 넷째 통일의 역사적 사명감 인식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성향, 세계 지향적 의식성향,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민족형성의 요인 인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민족,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2·3학년 학생들의 민족과 문화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 경향과 세계 지향적 의식 경향의 조사에서는 2, 3학년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자국 중심적 의식 경향과 한국민이라는 자긍심의 조사에서는 ‘높다’고 할 수 있는 뚜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달리하여 학습한 부산지역 고등학교 2·3학년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은 다를 것이라는 가정 아래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경향’, ‘세계 지향적 의식경향’, ‘자국 중심적 의식경향’, ‘민족형성의 중요 요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4개의 가설을 세워 검증을 해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유의확률을 나타내지 못해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민족·민족주의 이론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흔히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표현은 민족의 개념을 초역사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타민족을 배타적으로 보는 것을 키울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세계를 재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우월성을 갖게 하고, 이것이 실패했을 때 열등감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세계를 재패하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집단에 귀속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지나간 역사에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화하여 타민족을 희생시킨 유럽, 일본의 민족주의자들에게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의 발달된 과학기술은 세계화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지구촌의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 민족과 동화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런 지혜를 키워야 할 것이다. 자문화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다른 민족의 문화를 경시한다든지 민족적 우월성에 젖어 타민족과 타민족의 문화를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족·민족주의 교육도 지구촌을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미래지향적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근래의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개편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단 행 본

-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서울 : (주)두산, 2002).
- 김동성, 『한국민족주의 연구』 (서울 : 도서출판 오름, 1995).
- 김주환외 8인, 『고등학교 사회』 (서울 :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 김신일 · 김영화 · 김현덕, 『국제 이해교육의 실태와 국제비교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 김구,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 백범 김구 자서전』 (서울 : 돌베개, 1997).
-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 한반도 민족주의를 위하여』 (서울 : 당대, 1997).
- 서울대학교사범대학, 1종도서, 편찬위원회, 『고등학교 도덕』 (서울 : (주)지학사, 2002).
- 서울대학교사범대학 1종도서 편찬위원회, 『고등학교 윤리』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6).
- 성경륜, 『체제변동의 정치사회학』 (서울 : 한울, 1995).
- 이우용 · 정세구 · 추병완 · 차우규 · 오석종, 『교육부 도덕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2001.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 삼인, 1999).
- 전숙자, 『사회과 교육의 새로운 이해』 (서울 : 교육과학사, 2001).
-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서울 : 삼지원, 2001).
- 조상제 · 박제운 · 노희방 · 최병모, 『교육부 사회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2001.

- 차기벽, 『민족주의 원론』 (서울 : 한길사, 1990).
- Anthony Giddens, 김미숙외 6인 (역), 『현대사회학』 (서울 : 을류문화사, 1994).
- Anthony D. Smith, 이재석 (역),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 남지, 1996).
- Anthony Giddens, 진덕규 (역), 『민족 국가와 폭력』 (서울 : 삼지원, 1991).
- George A. Kourvetaris, 박형신 · 정현주 (역), 『정치사회학』 (서울 : 일신사, 1998).
- Benedict Anderson, 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 사회비평사, 1991).
-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E. J. Hobsbawm · 랑거, 최석영 (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울 : 서경문화사, 1995).
- E. J. Hobsbawm, 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0).
- John Breuilly, *Nationalism and the Stat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82).
- Louis L. Snyder, *The New Nationalism* (Ithaca : Cornell Univ. Press, 1968).
- NCSS, *Expectation of Excellence : Curriculum Standards for Social Studies* (Washington: NCSS, 1994).
- Tom Nairn, *Faces of Nationalism : Janus Revisited* (London : Verso, 1997).

2. 논 문

- 강상중·요시미 순야, "혼성화 사회를 찾아서 : 내셔널리티의 저편으로," 『당대비평』, 2000.
- 김동춘, "국제화와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비평』 27, 1994.
- 김세중, "박정희의 통치이념과 민족주의", 『근현대사강좌』 8, 한국현대사연구회, 1996.
- 서중석, "민족 의식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이영호, "한국근대민족문제의 성격", 『역사와 현실』 창간호, 1989.
- 이혁구, "민족주의의 재조명 : 민족, 국가, 그리고 계급", 『사회과학』 32-2, 1993.
- 이진영, "정체성 정치와 동북아 지역협력," 『한국과 국제정치』 제17권 1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1.
- 이진영, "한국의 민족정체성과 통일을 위한 열린 교육 개념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5-1, 2001.
- 이상신, "민족주의의 역사적 발전과 그 기능", 한국서양사학회편, 『서양사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 까치,1999).
- 임대식, "종속적 근대화와 민족문제", 『역사문제연구』 4, 2000.
- 임지현, "한반도 민족주의와 권력 담론: 비교사적 문제 제기", 『당대비평』, 2000.
- 임지현, "민족주의", 김영한·임지현 (편), 『서양의 지적 운동 I』 (서울 : 지식산업사, 1994).
- 임현진·정영철, "국가·계급·민족·문화", 『한국사회과학』 21-1, 1999.
- 임현진·공유식·김병국·설동훈, "한국에서의 민족 국가 형성 및 전개의 동학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 『성곡학술논총』, 성곡학술문화재단, 1996.

-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대학원, 1998.
- 정현백, “민족주의, 국가 그리고 페미니즘”, 『역사학회 가을심포지엄 자료집』
2000.
- 전종익,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2.
- 최용규, “한국 사회과에서의 민족 의식 교육”,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
교 대학원, 1992.
- Anthony D. Smith, “The Myth of the Modern Nation and the Myths of
N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11/1. 1988.
- Anthony D. Smith, “The Nation: Invented, Imagined, Reconstructed?”,
Millenium 20, 1991.
- Anthony D. Smith, “The Nation : Invented Imagined Reconstructed?”,
Marjorie, 1993.
- Charles Tilly, “States and Nationalism in Europe 1492-1992” *Theory and
Society*, vol. 23/1, 1994.
- Hans Kohn, “민족주의의 개념”, 백낙청 (편),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창작
과 비평사 1981).
- Tom Nairn, “민족주의의 양면성”, 백낙청 (편),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81).

부 록 : 설 문 지

학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민족과 문화에 관한 의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문항은 무기명입니다. 또한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은 연구를 위한 통계처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전공 김 성 도 드림

※다음 질문의 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학년은?

①2학년 ②3학년

2.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3.귀하 가정의 경제수준을 표시해 주십시오.

①상 ②중상 ③중하 ④하

4.귀하의 전년도 2학기 영어 과목별 석차는 몇 등입니까?

①1-100등 ②101등-200등 ③201등-300등 ④301등 이하

5.귀하의 전년도 2학기 수학 과목별 석차는 몇 등입니까?

①1-100등 ②101등-200등 ③201등-300등 ④301등 이하

6. 이 세계는 우수한 민족과 열등한 민족으로 나눌 수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7. 후진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보다 뒤떨어진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8. 후진국의 문화는 존중할(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9. 학교에서 우리나라 보다 인류의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0. 우리와 이념이 달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식량 원조를 해야 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1.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국군이 타국에서 싸우는 것에 찬성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2.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보다는 지구의 환경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3. 모든 국가의 평등한 생활수준을 위해 우리의 생활수준을 낮출 수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4. 우리나라에 불리한 일이라도 세계인류를 위한 일은 해야 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5.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에 속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6. 우리나라의 문화는 다른 어떤 나라의 문화 보다 우수하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7. 우리나라가 최대강국이 될 때가 올 것이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8. 혈연은 민족 국가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기본 요소이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19. 민족 의식은 혈연이나 지연보다 더 중요한 민족 국가의 형성요인이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